

Martin Hollis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Ch.2. Discovering Truth: The Rationalist Way 합리주의적 방법

▷ 진리를 발견하는 두 가지 방식 [베이컨(Francis Bacon)의 구분, 1620년]

- (1) · 감각(sense)과 개별자(particular)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공리(the most general axiom)를 얻음 연역
 - 이 원리들로부터 판단과 중간 공리들(middle axioms)의 발견으로 나아간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3위자 영구
- => 지금 유행하는 방식
- (2) · 감각, 개별자에서 공리를 도출 귀납
 -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도달한다.
- => 이것이 참된 방식이지만, 아직 시험된 적은 없음.

⇒ 합리주의(rationalism) vs 경험주의(empiricism)

> 합리주의는 더 이상 그다지 지지되지는 않지만, 숨겨진 구조와 법칙을 알아내기 위한 이론적 추론의 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남음. (이것이 이 단원에서 논의될 내용)

Reason in search of hidden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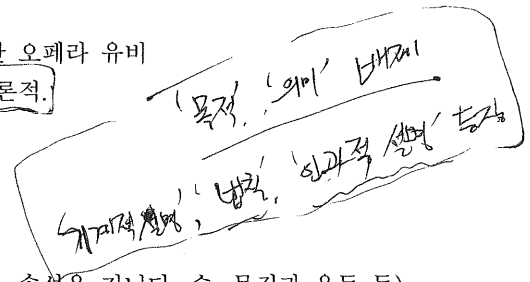
▷ 왜 베이컨의 첫 번째 방식을 택하는가? 그것이 인간의 관찰력을 넘어서는 자연 질서의 미발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혁명은 자연이 불변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기계적 힘이 제어하는 운동을 하는 물질의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취하게 하였다. 데카르트는 (감각 경험이 아니라) 합리적 직관을 중요시하였다. 즉, 감각만으로는 (관찰불가능한 힘과 구조 등의) 자연 질서를 파악할 수 없다.

▷ 17세기에는 세계를 시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퍼졌었다.: 감각으로는 시계 바늘만을 볼 수 있을 뿐, 시계 안의 부속장치들을 파악할 수 없다.

> 폰트넬(Bernard de Fontenelle)의 『세계의 다원성』(1686)에 나타난 오페라 유비

▷ 따라서, 베이컨의 첫 번째 방식은 필연적인 보편 법칙 탐색 과정, 결정론적.

>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Appearance and reality

▷ 현상(phenomena)과 실제(reality):

> 자료(data, 감각이 제공) vs 속성(property, 자연의 대상들은 속성을 지닌다. 수, 물질과 운동 등)

▷ 그런데 우리는 관찰가능한 구조와 힘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지성적 직관(intellectual intuition)': 수학 특히 기하학(예: 유클리드 기하학의 다섯 공리)

> 따라서, 데카르트의 과학적 방법은 (공리로부터 정리를 도출하는) 논리적 연역에 의존한다.

▷ 베이컨은 그의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는(그리고 수학을 모든 지식의 모형으로 만드려는) 합리주의자들이 '독단적 인간(men of dogmas)'이라 칭하였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몸 안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는 거미와 같다."

'Middle axioms' : 개별학문의 전제(공리)

▷ 과학이 관찰불가능한 것들을 다루려 한다면,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는 그것들의 숨겨진 질서를 믿어야만 한다. 무엇이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가?

▷ '중간 공리들': 개별 과학들이 생겨나서 잔가지로 뻗어나가는 마디에 해당.

▷ 그런데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접근은 불명료해 보인다.

Necessity

▷ 왜 과학(경제학 등)에 이론이 필요한가? 왜 세계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1) 관찰은 단순한 상관관계 이상이 될 수 없는 반면, 과학은 원인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이론이 필요하다.

(2) *Necessarily* ($A \rightarrow T$) 직관에 의해 A는 필연적으로 참, 증명에 의해 T도 필연적으로 참.

▷ 즉, 인과적 연결에 관련된 필연성이 논리학과 수학의 필연성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 합리주의는 만고불변의 사고 법칙이 존재한다는 입장. 어쨌든 일상 경험에서 숨겨진 체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인식론적 문제는 남는다. 논리적 필연성과 인과적 필연성을 연결하는 합리주의자의 등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구조와 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재론자가 되고 싶다면, 인과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